‘ART ON PAGE’ 참여 디자이너 코우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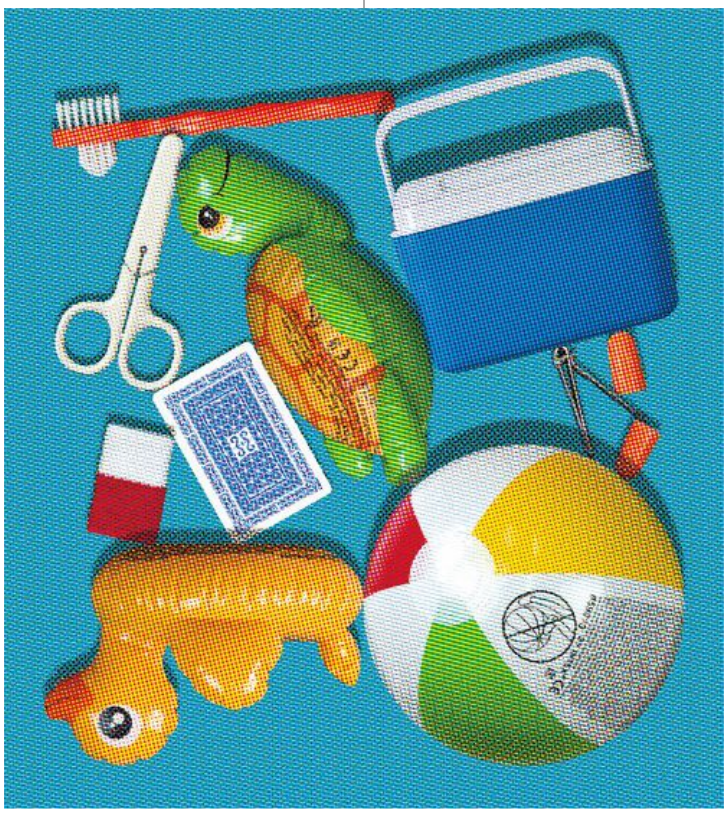
PEOPLE

2017 / 09 / 29

황영희

디자인 인쇄 출판까지, 모두 우리들의 놀이터!
‘ART ON PAGE’ 참여 디자이너 코우너스

디자인스튜디오 ‘코우너스(Cornors)’가 Art 8월호부터 10월호까지 총 3달간 ‘ART ON PAGE’ 지면을 장식했다. 이 코너는 1명(팀)의 아티스트를 초대해 매달 한 페이지를 창작의 장으로 제공한다. 코우너스는 기획에서부터 디자인 인쇄 출판까지 ‘자급 시스템’을 갖춘 디자인그룹으로 최근 아트씬에서 맹활약을 펼치는 중. Art는 코우너스의 멤버 조효준 김대웅 김대순을 만나 ‘여행’을 콘셉트로 한 이번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 및 그들의 다양한 프로젝트와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코우너스 2017 8월호 게재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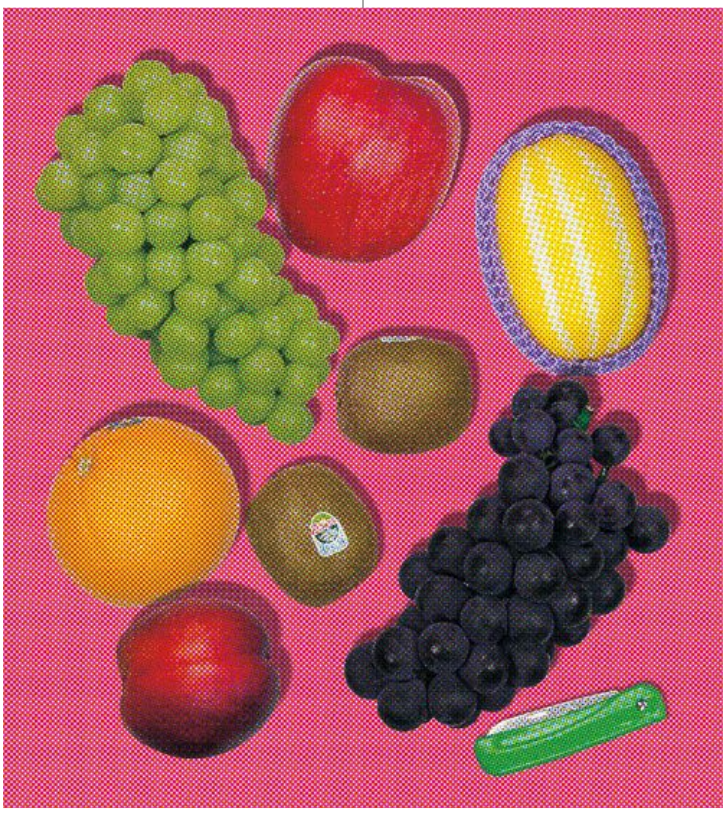
Art 지난 3개월간 Art와 함께 작업을 하게 된 소감은?
C 지난 7월, 이 작업을 제안 받았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바로 ‘여행’이었다. 여름휴가라고 하면 1년 동안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쉼을 통해 재충전을 갖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작업이 Art 지면에서 휴가와 같은 역할을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Art 물놀이와 등산, 과일을 각각의 콘셉트로 잡은 점이 독특하다. C 제비뽑기를 통해 조효준 김대순 김대웅 순으로 각각 한 달씩 맡아 작업을 진행했다. 10월호의 경우 직접적인 여행보다 '추석'이라는 연휴를 떠올려 과일을 고르게 됐다. 우선 각자 떠올린 콘셉트에 맞는 준비물을 직접 구입해 사진을 촬영해 작업했다. 각 사물의 실물 이미지를 사용해서 여행의 분위기를 더욱 생생하게 전하고 싶었다. 또한 한 페이지 안에 담긴 사물들의 크기를 자유롭게 조정하여 실제 이미지이지만 약간은 아이러니한 느낌을 주고 싶었다. 각 작업에 망점이나 대각선 등 일정한 패턴을 넣어봤는데 이러한 효과는 우리가 인쇄작업을 하기 때문에 떠올린 아이디어인 것 같다. 인쇄물에서 이러한 패턴이 보여주는 시각적 효과를 드러내고 싶었다.



2017 9월호 게재작업



2017 10월호 게재작업

Art 지금까지 진행해온 작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한다면?
C 외부에서 의뢰받아 진행하는 작업 이외에도 우리 자체 내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시도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려고 한다. 그 중 철도 라이브러리 시리즈가 있는데, 이 시리즈는 이효석의《공상구락부》, 채만식의《레디메이드 인생》 등 저작권이 만료된 한국 중단편 소설들을 재편집해 출판한 것이다. 또한 리소 인쇄로 사진작가의 포토북을 만드는 포토진 시리즈 콤비네이션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인쇄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연히 알게된 작가들에게 연락해 협업을 제안하기도 하는데 현재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활동하는 일러스트레이터 릴쿨(Lilkool)과 함께 엽서제작을 진행 중이다.

Art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C 현재 고양레지던시 오픈스튜디오 포스터 및 인쇄물 작업과 세계문자심포지아 아이덴티티를 제작하고 있다. 이달 열리는 타이베이아트북페어와 노르웨이 베르겐아트북페어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포토진 시리즈의 다음 작가로 EH와 협업할 계획이다.

코우너스 / 디자인 스튜디오. 김대웅 조효준 김대순.
디프로젝트스페이스 구슬모아당구장(2016)에서 개인전 개최.
<로터스 랜드>(광주아시아문화전당 2017), <그래픽 디자인, 2005~2015>(일민미술관 2016) 등 단체전 참여.